

### 영광군 장애인에게 ‘건강더하기+’ ...밀반찬 지원사업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중증장애인 30명 대상 가정에 직접 배달  
월4회씩 12월까지 진행 계획... “영양결핍 생기지 않도록 건강상태 모니터링”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위해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가 나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 사업이 중단되면서 독거장애인 및 가족지원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워 생활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 영광군지회는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간’으로부터 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 가정에 밀반찬 배달을 해주는

‘건강더하기+’ 밀반찬지원사업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광군지회는 소속 활동지원사 자조모임 ‘효롱불회’ 20여명의 봉사자와 함께 반찬 만들기부터 마련한 반찬을 나르는 역할 등을 지원받고 30명의 대상자 가정에 월 4회 올해 12월까지 ‘건강더하기+’ 밀반찬지원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밀반찬을 지원받은 중증지체장애인 이 O O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장보기 등 외부 활동이 더 어려워지

고 지병과 장애 등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정성 가득한 밀반찬을 받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황후선 지회장은 “저소득 독거 장애인들에게 한 끼 식사는 가장 필요한 복지에기에 이번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대상자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희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결식으로 인한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게 적극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아이디어와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여수시, 주민센터 5곳에 ‘행복한 나눔 냉장고’ 문 열어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 선정...만덕·서강·월호·중앙·한려동 운영



여수시가 지난 15일 만덕·서강·월호·중앙·한려동 주민센터 5곳에 ‘행복한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은 나눔냉장고 개소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영) 주관으로 열렸다.  
‘행복한 나눔 냉장고’는 개인·단체·기관·슈퍼마켓 등에서 후원받은 식료품 등을 저소득층 누구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해 주 5일 운영하며, 일주일에 한 번 ‘기부와 나눔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전남도의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포함 총 2400만 원을 투입해 냉장고와 식품진열대, 식품 구입, 현판 제작 등을 마쳤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복지 시설들이 휴관하면서 취약계층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때마침 나눔냉장고가 문을 열게 돼 걱정을 덜었다”면서 “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힘을 모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영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행복한 나눔 냉장고로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덩달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역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진도군, 치매 안심마을 조성 ‘활발’

고군면 지수마을 ‘진도 2호’ 지정

진도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고군면 지수마을을 ‘진도군 2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고립방지,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마을에서 보호·지원하는 등 물리적 환경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치매·고령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자동잠금장치 보급과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군은 지난해 6월 진도군 의신면 칠



전 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바 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걱정 없는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마을과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단체는 진도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540-60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이 필요할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